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I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연준 이사 해임 소식에도, 엔비디아 실적 기대 등으로 반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7일(화)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컨퍼런스보드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5.7% → 6.2%) 소식에도, 엔비디아(+1.1%) 실적 기대감에 따른 AI 주 강세로 상승(다우 +0.3%, S&P500 +0.4%, 나스닥 +0.4%).

최근 수개월간에 걸쳐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게 지속적인 금리인하 압박을 해온 가운데, 전일에는 연준 위원인 리사 쿡 이사를 해임키로 결정. 표면상으로는 쿡 이사가 '21년 부당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혐의가 해임의 명분.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본인이 원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새로운 인물을 연준 이사로 임명하기 위한 의도이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실제로 트럼프는 전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다수의 인사를 확보했다는 발언을 함).

다만, 쿡 이사의 해임 가능성은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노출된 재료였기에, 이번 해임의 주식시장 파장은 크지 않은 모습. 쿡 이사 해임 전후 Fed Watch 상 9월 금리 인하 확률(해임 전 83.7% vs 해임 후 90.4%)은 변하지 않았으며, 연말까지 2회 인하 컨센서스(50.1% vs 3회 35.8%)도 유지되고 있다는 마찬가지.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트럼프 리스크가 연준의 금리 경로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하는 재료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

추후에도 트럼프가 추가적인 인물 교체를 통해 통화정책 개입에 나설 시, 주식시장에서는 연준발 정치 노이즈의 피로감을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는 함. 그렇지만 파월 의장 역시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으로 선화한 만큼, 트럼프 역시 이전보다는 연준 압박의 수위를 높이지 않을 전망. 지금처럼 9월 인하 전망이 우세한 기간 중에는 트럼프 발 연준 정책 노이즈의 확산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이제 시장은 내일 미국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할 예정. 이번 이벤트는 2분기 실적 컨센(매출액 459억 달러, EPS 1.0달러) 상회 여부도 중요하나 3분기 가이던스 변화에도 주가 민감도가 높아질 전망.

또한 1)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블랙웰 실적(SK하이닉스의 HBM 3E 탑재), 2) 삼성전자의 HBM 3E 인증 진행 과정 혹은 HBM4 협력 언급 여부, 3) 중국향 H2O 매출 포함 여부(지난 1분기에는 미포함)도 간과할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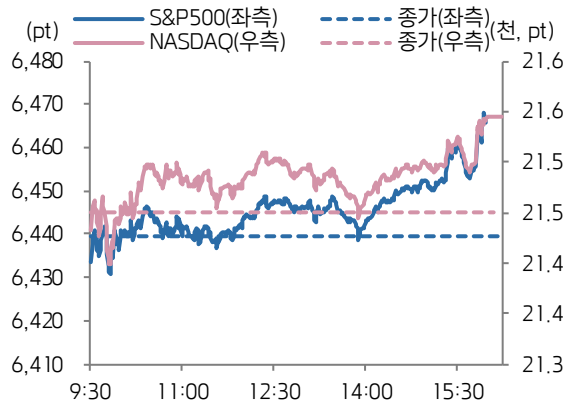
이처럼 엔비디아 실적은 AI 산업의 과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전망.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3분기 실적시즌 전까지 어느 쪽이 수급 우위를 가져갈 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예정. 따라서 금일부터는 국내 증시에서 이들 반도체주 간에 수급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관세 협상 결과 부재,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 여파로 혼조세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0.4%).

(다음 페이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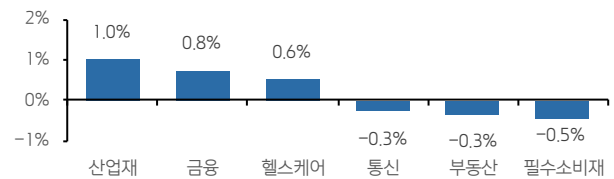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증시의 상승 전환 소식, 전일 MSCI 리밸런싱 발 수급 조정 여파로 주가 급락이 컸던 조선, 방산 등 주도주들의 주가 되돌림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업종 측면에서는 장중 엔비디아 실적 대기심리 확산으로 반도체주들은 눈치보기 장세를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업종들도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간 차별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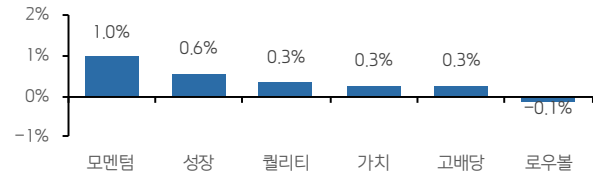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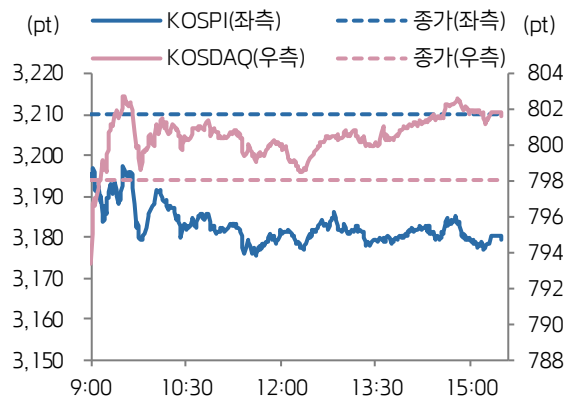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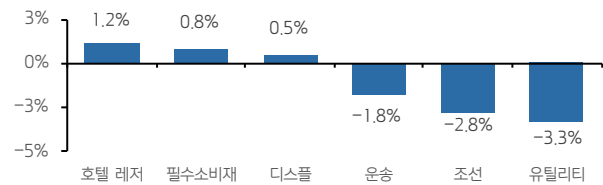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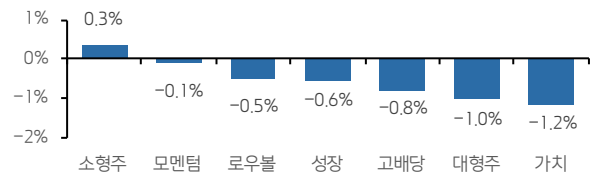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9.31	+0.95%	-8.1%	GM	58.80	+0.89%	+11.01%
마이크로소프트	502.04	-0.44%	+19.76%	일라이릴리	736.03	+5.85%	-4.09%
알파벳	207.14	-0.65%	+9.68%	월마트	96.05	-0.02%	+7.11%
메타	754.10	+0.11%	+29.01%	JP모건	298.57	+1.24%	+26.58%
아마존	228.71	+0.34%	+4.25%	엑손모빌	111.49	-0.22%	+6.52%
테슬라	351.67	+1.46%	-12.92%	세브론	157.36	-0.53%	+12.42%
엔비디아	181.77	+1.09%	+35.38%	제너럴일렉트릭	96.05	+0%	+7.1%
브로드컴	298.01	+1.28%	+29.23%	캐터필러	431.26	-0.24%	+20.33%
AMD	166.62	+2%	+37.94%	보잉	234.83	+3.51%	+32.67%
마이크론	116.50	+0.07%	+38.74%	넥스트에라	74.84	-0.6%	+6.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179.36	-0.95%	+32.5%	USD/KRW	1,393.60	+0.24%	-5.35%
코스피200	429.41	-1.03%	+35.11%	달러 지수	98.22	-0.21%	-9.46%
코스닥	801.66	+0.46%	+18.21%	EUR/USD	1.16	+0.21%	+12.44%
코스닥150	1,357.94	+0.73%	+20.19%	USD/CNH	7.15	-0.07%	-2.52%
S&P500	6,465.94	+0.41%	+9.93%	USD/JPY	147.40	-0.27%	-6.23%
NASDAQ	21,544.27	+0.44%	+11.57%	채권시장			
다우	45,418.07	+0.3%	+6.75%	가격	DTD(bp)	YTD(bp)	
VIX	14.62	-1.15%	-15.73%	국고채 3년	2.417	-1.8bp	-17.8bp
러셀2000	2,358.60	+0.83%	+5.76%	국고채 10년	2.855	+0.3bp	-1.6bp
필라. 반도체	5,807.92	+0.9%	+16.63%	미국 국채 2년	3.679	-4.5bp	-56.3bp
다우 운송	15,863.21	+0.31%	-0.2%	미국 국채 10년	4.262	-1.4bp	-30.8bp
상해종합	3,868.38	-0.39%	+15.41%	미국 국채 30년	4.919	+3bp	+13.8bp
항셍 H	9,148.66	-1.07%	+25.5%	독일 국채 10년	2.723	-3.4bp	+35.6bp
인도 SENSEX	80,786.54	-1.04%	+3.3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383.68	-1.11%	+9.96%	WTI	63.25	-2.39%	-8.08%
MSCI 전세계 지수	952.72	-0.03%	+13.24%	브렌트유	67.22	-2.3%	-9.94%
MSCI DM 지수	4,177.26	+0.07%	+12.66%	금	3,433.00	+0.45%	+24.07%
MSCI EM 지수	1,274.21	-0.88%	+18.48%	은	38.61	-0.25%	+32.02%
MSCI 한국 ETF	72.39	-0.47%	+42.25%	구리	445.95	-0.4%	+10.75%
디지털화폐				BDI	1,944.00	+2.69%	+94.98%
비트코인	111,356.37	+1.63%	+18.83%	옥수수	409.50	-0.67%	-7.72%
이더리움	4,587.50	+5.38%	+37.08%	밀	531.75	+0.38%	-11.15%
				대두	1,049.50	+0.17%	+2.37%
				커피	372.30	-1.44%	+28.6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